

#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8)

##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of China

한동수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Han Dong-Soo

중국의 원림건축은 성시건축, 주거건축, 궁궐건축, 사묘건축, 단묘건축, 능묘건축 등과 더불어 중국고전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건축유형도 원림건축 만큼 중국인의 정신세계와 조형세계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중국을 정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일궈낸 한자문화권의 범주 속에서 세나라가 각기 가지고 있는 건축미학의 차별성도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 따라서 중국 고전 원림건축에 대한 이해는 최근들어 우리 건축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교건축의 시각을 여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와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이 연재는 모두 10회로 구성하였으며 먼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기본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이어서 그 설계원리를 규명해 보며, 다음으로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을 탐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오늘의 중국 현실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필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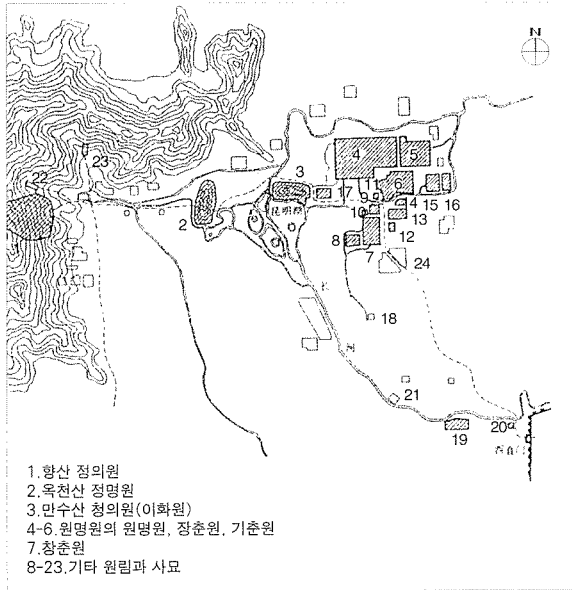
### 〈 연 재 목 차 〉

1. 시대적 풍경과 특색
2. 봉건사회형태의 특징과 원림 발전의 원인
3. 원림의 경영자와 장인, 그리고 이론서
4.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
5. 공간처리 원칙과 수법
6. 경관요소와 조합방식
7.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어화원
8. 원림작품의 분석: 북경의 이화원
9. 원림작품의 분석: 소주의 졸정원
10. 세시대의 정신, 새로운 원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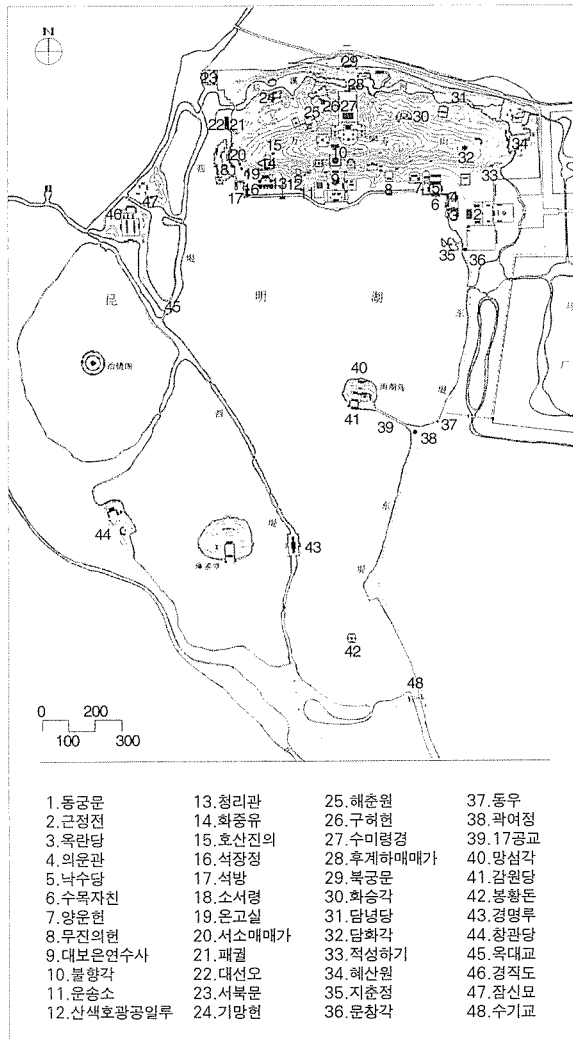
## 8. 원림작품의 분석: 북경의 이화원

### 8.1 이화원의 역사변천

이화원은 북경에서 서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교외에 위치한 대형 자연산수원림이자 향가원림의 하나로 294헥타아르의 면적<sup>1)</sup>을 점유하고 있으며 둘레의 길이는 6.5km이다. 이 원림은 청대 북경의 삼산오원(三山五園)<sup>2)</sup> 가운데 가장 늦게 조성된 원림으로서 3~4세기경부터 이미 풍경이 수려한 지역이었다.<sup>(그림1)</sup> 건륭 15년(1750년) 황제가 모친의 60세 축수를 위하여 옥천산의 계류를 서호(西湖)로 끌어들이어 곤명호(昆明湖)로 이름을 바꾸고 웅산(兪山) 원정사(圓靜寺)의 옛터에 대보은연수사(大報恩延壽寺)를 세운 뒤, 웅산의 이름을 만수산(萬壽山)<sup>3)</sup>으로 개명하여 청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sup>4)</sup>(그림1). 당시에는 호광산색(湖光山色)이 청아하고 대보은연수사 등 산위에 지어진 건축물, 널찍한 수면의 곤명호에 만들어진 섬과 제방, 서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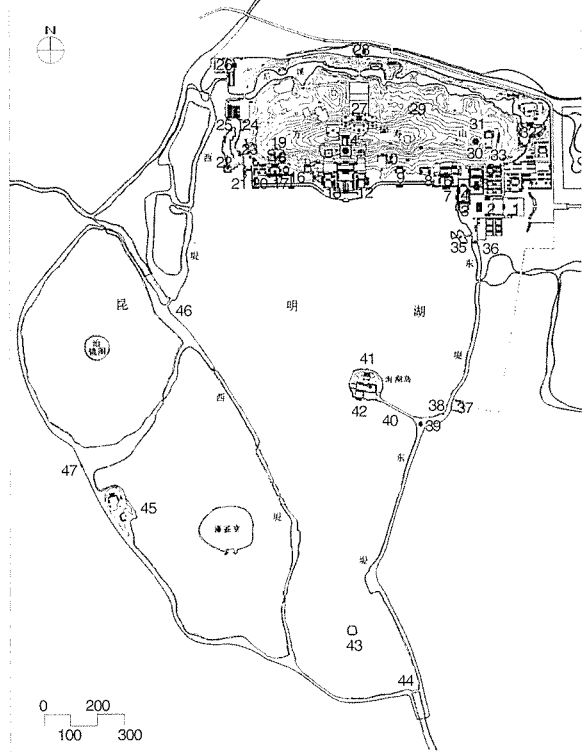


(그림1) 건륭 황제 시기 북경의 삼산요원 위치도



(그림2) 청의원 시기의 전체 배치도

1) 면적에 관해서는 290헥타르라는 책도 있으나 여기서는 《中國古典園 園與名園》(劉策 외 편, 明文書局, 1986년)에 기재된 수치를 따랐다.  
 2) 삼산요원에는 창춘원(暢春園), 원명원(圓明園), 향산(香山) 정의원(靜宜園), 옥천산(玉泉山) 정명원(靜明園), 만수산(萬壽山) 청의원(淸漪園)이 해당된다.



(그림3) 이화원으로 개명 이후의 전체 배치도

으로 바라다보이는 옥천산과 서산의 경관, 드넓은 평야가 전개되는 일망무제의 동남쪽 경관, 만수산 동쪽 기슭에는 무석(無錫)의 기창원(寄暢園)을 모방하여 만든 원림 속의 원림인 혜산원(惠山園) 등이 원림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후 가경년간(嘉慶年間: 1522년~1566년) 부분적인 확장파 보수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배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함풍 10년(1860년)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북경에 침입하면서 북경 교외에 있던 청의원, 원명원 등의 주요 황가원림을 모두 폐허로 만들면서 이곳도 피해를 입었다. 6년 뒤인 광서 12년(1886년), 자희(慈禧) 태후는 해군의 경비를 동원하여 이 원림의 중간에 착수하였으며<sup>5)</sup> 광서 14년(1888년) 현재의 명칭인 이화원으로 개명을 하였다<sup>(그림3)</sup>. 그러나 1900년, 서방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이화원은 다시 한번 크게 파괴되었고 광서 27년(1901년) 자희 태후가 피난 갔던 서안에서 북경으로 환도하고 난 뒤, 또다시 하나둘씩 복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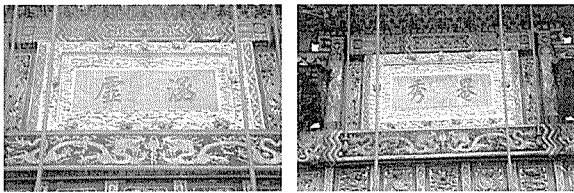
3) 만수산의 동서 길이는 1000m이고 높이는 60m이다.  
 4) 청의원은 10여년의 토목공사를 거쳐 건륭 29년(1764년)에 완성되었다.  
 5) 자희 태후가 추진했던 이화원 복원 공사는 광서 21년(1895년)에 중단되었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청대 황실 우대조건에 의거하여 폐위된 황제가 기거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1914년부터는 입장권을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개방됨으로서 유람의 장소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몇 십 년 동안에 걸친 군벌들간의 싸움과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하여 원림의 경관과 건축물들은 참담한 지경에 빠졌으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난 이후 지속적인 보수를 통하여 원래의 면모를 어느 정도 되찾게 되었다.

## 8.2 주요 건물의 현판과 주련이 가진 의미

중국은 특정한 원림의 의경을 창조하기 위하여 나무나 돌 등에 시 또는 특별한 의미의 글자를 새겨 걸어두는 오랜 전통이 있어왔다. 이것은 오대 말기에 이르러 발달된 당대 시가문학의 기초 위에서 대련, 주련, 편액(또는 현판이라고도 함) 등의 예술형식을 낳았으며 점차 원림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었다. 이화원은 주련과 편액, 판각이 비교적 많은 황가원림에 속한다. 주요 건축물의 편액을 위주로 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궁문 외곽의 패루 위에 걸려 있는 함허(涵虛)와 엄수(嚴秀)는 “공허하고 적막한 경지”와 “그림과 같은 풍경”이라는 의미를 각각 담고 있다(그림4). 따라서 이화원



(그림4) 동궁문 밖에 있는 패루의 현판

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에 이러한 현판을 건 것은 이화원의 규모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궁문을 들어서면 이화원이란 현판이 눈에 띈다. 이화원의 이화는 “천년을 보양하는 천하태평의 원림”이라고 풀이되는데 그것은 이 원림을 통하여 황제 자신이 오랫동안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바람에서 나온 것이다. 동일한 의미의 현판은 자금성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건륭 황제가 퇴위 후에 머물렀던 이화헌이 바로 그것이다.

궁전구역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건물은 인수전이다. 인수는 <논어·옹아편>에서 인용한 것으로 “어진 자가 장수하는 전각”이란 뜻이다. 다음으로 만수산 남쪽 구역의 중심 건물인 동시에 이화원 전체의 구도 중심이 되는 불향각의 불향은 “불타중향지각(佛陀衆香之閣)”에서 취한 명칭이다. 불은 범어 불타의 약칭이고 향은 불경 <마힐경·향적품>에 나오는 이상적인 국가 중향국(衆香國)의 줄인 말로서 이 둘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청대에는 불교를 숭상하였으므로

원림 전체가 부처님의 자비에 의해 보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는 원림 자체가 부처님의 이상적인 세계임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곤명호 안에 있는 섬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장 큰 섬인 조감당은 “인재를 선발하는 당”이란 뜻이고 두 번째로 큰 섬 남호도는 섬의 위치에서 그 뜻을 취했으며 치경각은 “정치를 똑똑히 살피는 각”이란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유람을 하면서도 국가의 동량을 구하고 자신의 직무를 잊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세심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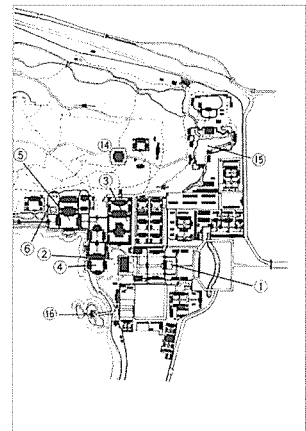
## 8.3 주요 경관 구역의 특성

이화원은 일산일호(一山一湖)의 광활한 면적을 점유한 황가원림으로서 크게 생활거주 구역을 포함한 궁원구역과 만수산 및 곤명호의 경관구역을 포함하는 원림구역으로 대별된다. 여기서는 이것을 궁원구역, 곤명호 구역, 장랑, 만수산 남쪽 및 북쪽 구역, 매매가, 해취원 등으로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궁원구역

궁원구역은 이화원의 입구에 해당하는 동궁문(東宮門) 안쪽에 있는 인수전을 중심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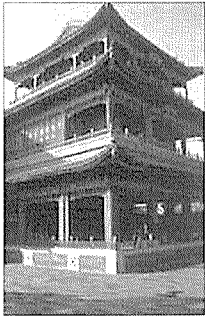
동궁문 밖의 함허(涵虛), 엄수(嚴秀)라는 현판이 붙은 패루에서부터 시작하여 동궁문, 인수문을 거쳐 인수전에 이르는 중추선의 좌우에는 일련의 전각이 전조후침(前朝後寢)의 원칙에 따라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그림5, 6). 이곳에서는 정사를 논의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연극의 감상, 연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이화원 안에서 건축물이 가장 많이 밀집된 장소이다. 청대의 황제와 황후들은 대부분 여름철이 되면 이화원 내에 머물며 인수전에서 외국의 사절을 맞이하고 주요 행사를 집전했다. 인수전의 뒷편은 곤명호에 면하고 있는데 옥란당(玉蘭堂), 의운관(宜芸館), 낙수당(樂壽堂) 등의 건물은 회랑으로 형성된 각기 다른 3개의 대형 사합원을 이루고 있다. 이 세 건물은 광서황제의 황후와 자희



(그림5) 궁원구역의 배치도



(그림6) 인수전 앞에 건설된 건물과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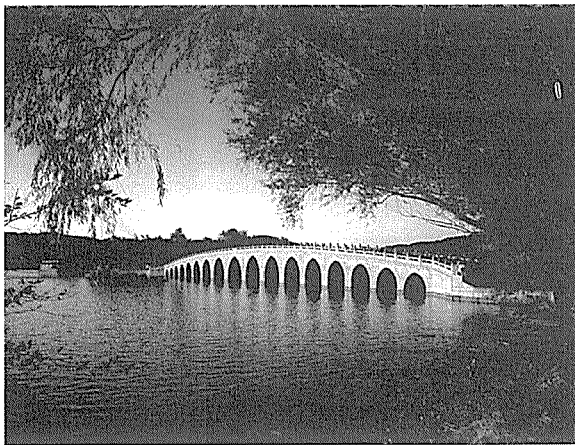
(그림7) 경극을 공연하기 위해 지어진 덕화원 안의 대희루

태후가 기거를 하던 곳이다. 특히 자희 태후가 기거를 하던 낙수당의 서쪽은 원림의 유람구역으로 진입하는 장랑(長廊)과 연결되어 있으며 중정에는 청지수(靑芝岫)라고 불리는 높이 4미터, 폭 2미터, 길이 8미터 크기의 거대한 산석을 옮겨다 놓았다. 또한 이곳의 남쪽에는 호수에 면한 문청(門廳)이 있는데

문 밖에는 자희 태후가 배를 타고 수로를 따라 이화원에 도착하여 하선을 하던 부두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인수전의 북쪽, 만수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덕화원(德和園)은 3개의 중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서, 남 3면의 건물들은 태감(太監)들이 일을 보는 곳이며 3층 건물의 대희루(大戲樓)는 경극을 공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그림7).

#### (2) 곤명호 구역

곤명호(7)의 둘레는 1930m이고 호수면적은 200헥타아르에 달하는데 원림 전체의 4분의 3을 점유한다. 이곳에는 2개의 제(堤), 5개의 섬, 9개의 다리가 있으며 4개의 유명한 호수를 모델로 삼아 조성되었다. 다만 6개의 섬 가운데 소서령(小西泠), 지춘정(知春亭), 봉황돈(鳳凰墩)은 규모도 작고 동제의 경역에 속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러 보통 삼도라고 부른다. 이 삼도의 정연한 배치는 황가원림의 전통인 일지삼산(一池三山)<sup>8)</sup>의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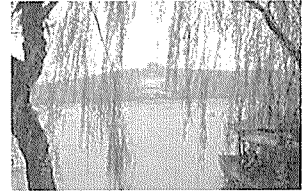
(그림8) 남호도와 동쪽 호안을 연결하는 17공교

것이다. 우선 17개의 아치 석교로 동쪽 호숫가와 연결된 남호도(南湖島)를 살펴보면 삼도(三島) 가운데 두 번째로 크지만 곤명호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전체 원림의 가장 중요한 풍경지점을 이룬다(그림8). 타원형에 가까운 만월(滿月) 형

6) 궁궐에 살던 환관 즉, 내시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7) 곤명호는 건륭 16년(1751년) 만수산 행궁을 청의원으로 삼으면서 세워진 청의원 관리구가 주관한 대규모 준설공사를 통해 오늘날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준설할 때 나온 흙은 원림의 전체적인 배치계획에 따라 만수산의 동서 양측을 완만하게 하고 대청을 이루게 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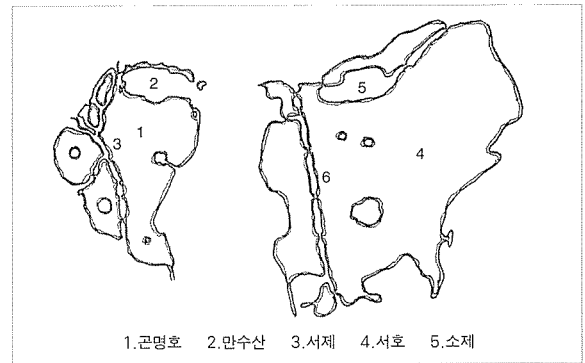
태의 섬 위에는 용왕묘(龍王廟)인 광운영우사(廣潤靈雨祠), 망섬각(望峯閣), 감원당(鑒遠堂), 담회헌(澹會軒), 월파루(月波樓), 운향각(雲香閣), 함



(그림9) 망섬각 앞에서 만수산을 바라 본 경관

허당(涵虛堂) 등의 건축물이 세워져 있고 누각의 이름은 월궁선경(月宮仙境)을 주제로 삼아 표현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망섬각에 오르게 되면 사방이 탁 트여 주위를 조망할 수 있는데 특히 북쪽의 만수산 전경과 서쪽의 옥천산 및 서산이 차경으로 이용되는 절묘함을 보여준다(그림9). 서제의 서쪽에 있는 2개의 수역은 비교적 작는데 그 중심에 각기 섬이 하나씩 있으며 남쪽에 있는 섬은 곤명호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그 위에는 조감당(藻鑿堂)이 있고 당의 앞에는 건륭 황제가 배를 타고 와서 경치를 감상하고 차를 마시던 봉철명대(鳳啜茗臺)가 호수에 면해 있다. 북쪽의 호수면에도 섬이 하나 있는데 형태가 독특하고 섬 위에는 2층의 원형 성보(城堡)를 만든 뒤, 다시 그 위에 3층 높이의 치경각(治鏡閣)을 세웠다.

서제는 서궁문 안에서 수의교(綉漪橋)까지로 항주 서호의 소제(蘇堤)를 모방하여 만들어졌는데 이곳에서는 도화가 피고 버들이 늘어져 아침 안개가 자욱한 초봄의 경색을 감상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 위에는 유교(柳橋), 빈풍교(漪風橋), 옥대교(玉帶橋), 경교(鏡橋), 연교(練橋), 계호교(界湖橋) 등 모두 6개의 다리가 놓여져 있으며 연교와 계호교의 사이에는 원래 악양루를 모방하여 만든 경명루(景明樓)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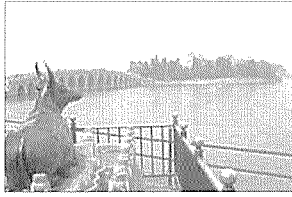


(그림10) 청의원(좌)과 항주 서호(우)의 비교

있었으나 현재는 터만 남아있다(그림10). 그리고 호수남단에 있는 봉황돈이라고 하는 작은 섬의 주변은 무석의 대운하 가운데 있는 황부돈(黃埠墩)의 경관을, 호수지역의 북쪽은 한무제의 곤명자를 각기 모방하여 조성한 것이다. 호수 북단 호안 가까이에 지춘정이 있는데 곤명호 전체를 감상하고 옥천산과 서산을 차경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다. 호수 남단의 숙기교(繡綺橋)

한 개조작업에 사용되었다.

8) 중국 역사상 황가원림에서 일지삼산의 배치는 서한시기의 건장궁(建章宮)에서 처음 등장하며 이화원은 마지막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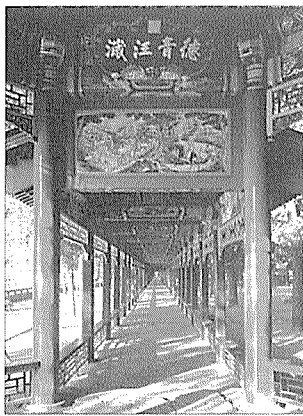


(그림11) 청동으로 만든 소 및 소와 대응관계를 이루는 남요도

는 다리의 수문으로 이곳을 빠져나간 물은 서남쪽으로 건설된 긴 운하를 따라 지금 성 외곽의 해자까지 도달한다(그림3 참조). 그 밖에 곤명호의 동쪽 호안에는 물이 범람하는 것을 진압하기 위해 동(銅)으로 만든 소 한 마리(銅牛)가 호수 서쪽의 건축군과 수면을 사이에 두고 대응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계획사상은 천인감응(天人感應)의 사상과 견우직녀의 설화에서 유래된 것이다(그림11).

### (3)장랑

장랑은 일명 천보랑(千步廊)이라고도 하는데 길이 약 1000m, 755칸의 규모로서 만수산 남쪽 구역의 주요한 유람노선을 형성한다. 한쪽 면은 곤명호에 면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은 만수산의 기슭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동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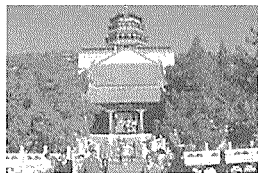


(그림12) 장랑 내부에서 바라본 모습

낙수당(樂壽堂) 요월문(邀月門)에서 시작하여 서쪽의 석장정(石丈亭)에서 끝을 맺는 이 긴 회랑은 산문(山門)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가(留佳), 기란(寄瀾), 서쪽에는 추수(秋水), 청요(淸遙)라고 이름 붙여진 팔각정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어 휴식과 풍경감상의 장소로 제공된다. 회랑 내부의 보와 도리에는 산수, 인물, 화조 등을 소재로 삼은 1만4천여 폭의 소식채화(蘇式彩畵)가 그려져 있어 화랑(畵廊)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그림12).

### (4)만수산 남쪽 구역

사람들은 이 지역을 일명 전산(前山)이라고 부른다. 이곳의 가장 두드러진 경관은 40m에 달하는 불향각(佛香閣)이다. 곤명호에 면한 운휘옥우패방(雲輝玉宇牌坊)에서부터 북쪽으로 배운문(排雲門), 배운전(排雲殿), 덕취전(德輝殿), 불향각, 유리패루(琉璃牌樓) 중향계(衆香界), 무량전인 지혜해(智慧海) 등이 산세(山勢)의 흐름에 따라 놓여져 있으며 그 양측의 대칭적인 위치에 전문장(轉輪藏: 동쪽)과 동정(銅亭: 서쪽)이 있다. 이 일대의 중앙건축군은 원림 전체의 핵심적인 부분인 동시에 주축선을



(그림13) 패방 앞에서 불향각을 바라다 본 모습

이룬다(그림13).

이것은 산악이 층층이 겹쳐진 금수경관 속에 화엄 세계의 누대(樓臺)가 놓여진 경관을 상징하였는데 자연미 속에 건축미를 표현한 뛰어난 경관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산세에 따라 수직적으로 배치된 건축군은 마주보고 있는 광활한 면적의 수평적인 곤명호 수면과 강렬한 대비효과를 얻으면서 주중과 리듬이 있는 공간체계를 형성하는 한편, 호수 전체의 경관을 감상하는 중요한 장소의 역할을 한다.

### (5)만수산 북쪽 구역

사람들은 이 지역을 일명 후산(後山)이라고 부르는데 면적은 500헥타아르 정도이며 이화원 전체면적의 10분의 1 정도가 된다. 중간에는 후계하(後溪河)가 흐르며 수원(水源)은 옥천산에서 발원한다. 후계하의 양쪽 편은 만수산의 전면과 달리 경물(景物)이 유심(幽深)하여 별유동천(別有洞天)이라고 이를 만 하다.

후산의 중앙에는 10m에 달하는 붉은 색 기단 위에 북향으로 앉혀진 수미령경(須彌靈境)이라고 하는 대형 사찰이 있는데 한족과 장족의 양식이 섞인 혼합식 건축물이다(그림14). 중심건물은 향엄종인직각(香嚴宗引之閣)으로 주위에 사대부주전(四大部洲殿), 팔소부주전(八小部洲殿), 일전(日殿), 월전(月殿), 사색탑(四色塔) 등이 있다. 이것은 승덕(承德)의 보녕사(普寧寺)와 서장지역에 있는 상야사(桑耶寺)의 형제(形制)와 유사하다. 여기서 북쪽으로 더 나가면 패루와 후계하를 가로지르는 3개 아치로 된 석교가 나오고 그 북쪽에 북궁문(北宮門)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의 축선상에 놓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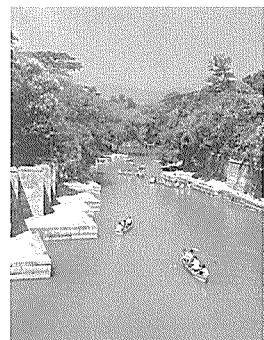


(그림14) 후산 중앙부에 세워진 사찰 건축군

1860년 청의원이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훼손될 때 이 지역의 경관도 모두 폐허가 되었다. 그 후 1888년 자희 태후가 이화원을 중건하면서 재정이 고갈된 관계로 후산 일곽의 경관은 완전히 복구되지 못했다.

### (6)매매가

길이 270m, 둘레 700여m에 이르는 매매가(賈買街)는 강남지역의 수상도시인 소주의 거리를 모방하여 조성한 것이다. 따라서 일명 후계하 매매가, 또는 소주가(蘇州街)라고 불리운다. 후계하의 양측, 장교(長橋)의 좌우측에 있는데 건륭 57년(1792년)에



(그림15) 북원 전의 매매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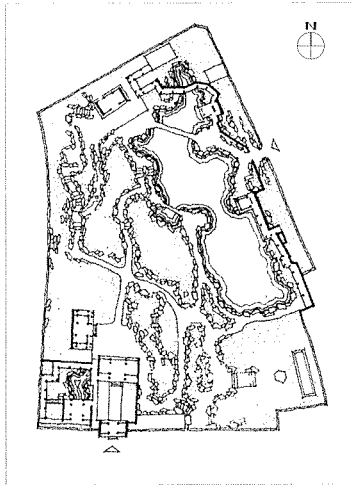
(그림16) 복원 후의 매매가 전경

만들어졌다. 소주가의 주변은 다양각색의 점포 64개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점포의 입면은 북경성에서 자주 보이던 패방(牌坊), 패루(牌樓), 박자(拍子)의 3가지 형식을 이용하였다. 당시 황제와 황후가 이곳을 유람하게 되면 태감(太監)들이 상인이나 고객으로 분장하여 실제 소주 거리의 변화한 상황을 연출하였다고 한다.

이곳 역시 1860년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 훼손되었으며 그 이후 줄 곧 방치되어 있다가 1986-1990년 북경 청화대학 건축학원에 의해 복원되어 오늘에 이른다(그림15, 16).

### (7)해취원 일괄

해취원은 만수산 동쪽 기슭, 궁전구역 가까이 있는 독립적으로 조성된 원림 속의 원림이다. 원래 명칭은 혜산원(惠山園)으로 1751년 건륭 황제가 남방순시 때 무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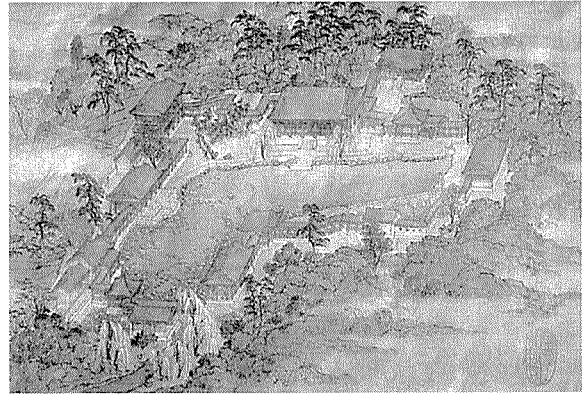
(그림17) 무석 기창원의 배치도

혜산 아래 있던 기창원(寄暢園)(그림17)을 보고 감탄하여 화공을 시켜 그 모습을 그림에 담게 한 뒤 북경에 가지고 와서 그림의 형상을 모방하여 3년만에 완성하였다. 가경 16년(1811년) 중수된 이후, “이물외지정취, 해춘전지중화(以物外之靜趣, 諧寸田之中和)”와 홍력(弘曆)<sup>9)</sup>의 시구인 “일정일경, 족해기취(一亭一徑, 足諧奇趣)”에서 의미를 취해 해취원으로 바꾸었다. 함풍 10년(1860년) 영국과 프랑스 군대에 의해 파괴된 것을 광서 18년(1892년)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다(그림1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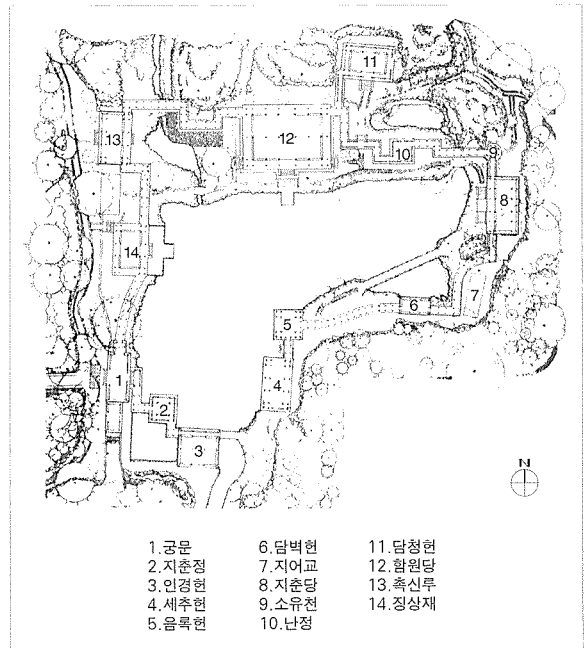
해취원의 궁문은 서남쪽에 설치되어 있고 문밖을 나서 남쪽으로 향하면 궁전구역으로 직접 연결되며 북쪽을 향해 서쪽으로 가면 만수산 북쪽 기슭의 후계호에 이르게 된다. 해취원은 비록 개문견산(開門見山)<sup>10)</sup>의 전통적인 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궁문을 열고 들어서면 구불구불한 호수가의 형상과 그 주변의 건축물이 은밀히 드러나면서 사람을 이끌어 유람을 시작하게 한다. 원림 안에서 처음으로 마주치

9) 청대 고종인 건륭 황제의 이름이다.

10) 개문견산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원림의 경우에는 원림 전체의 실체를 곧 바로 드러나게 하거나 노출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림18) 해취원의 조감도



(그림19) 해취원의 배치도

는 하지(荷池)의 수면은 서남쪽으로 깎여진 “r” 형상인데 수면들 사이에 두고 반대쪽에는 세추헌(洗秋軒)이 바라다 보이며 남쪽에는 지춘정(知春亭)과 인경헌(引鏡軒)이 있다. 이들 3동의 건축물은 회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일체감을 이룬다. 세추헌의 북쪽으로 이어진 회랑은 음록헌(飲綠軒)으로 연결되고 이곳은 연못이 깎여지는 곡절점이 된다. 이 건물에서 고개를 돌려 연못의 수면을 사이에 두고 북쪽을 바라보면 원림의 중심인 함원당(涵遠堂)이 시선에 들어온다. 이 건물은 해취원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함원당의 오른쪽에는 회랑으로 연결된 축신루(矚新樓)가 있고 왼쪽의 뒷편 언덕 기슭에는 담청헌(澹淸軒)이 있어 함원당을 호위하여 더욱 웅장하게 보이도록 한다.

해취원은 작은 면적임에도 가운데 부분을 연못의 빈 공간으로 크게 남겨두고 주변에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그 외곽을 다시 산언덕으로 감싸므로서 지척에 있는 높고 거대한 이화원의 외곽담을 감지하지 못하게 한 결과 대단히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園